

이 자료는 2024년 2월 7일(수)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동정자료



■ 매수 : 2매 ■ 사진 : 일정종료직후 제공 웹하드(press.webhard.co.kr) ID/PW:press1

담당 : 서울특별시 대변인 언론담당관

언론담당관	2133-6205	신문팀장	2133-6207	담당자	2133-6253
이준형		김경진		정수민	

오세훈 시장, 설 앞두고 전통시장, 경찰·소방 등 찾아 민생점검 및 시민안전 당부

-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수) 14시 20분, 신영시장(양천구 신월동)과 인왕시장(서대문구 홍제동)을 찾아 제수용품 등을 사러 나온 시민과 인사를 나누고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살핀다. 이어 연휴 기간 시민 안전을 지켜줄 파출소, 119안전센터를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한다.
- 오 시장은 떡, 한과, 육류, 과일 등 명절음식을 판매하는 점포를 방문해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물품을 직접 구매하며 상인들로부터 판매동향에 대해 들어보고, 앞으로도 시설·경영현대화 사업을 비롯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한다.
- 총 150여 개 점포가 운영(서서울골목형상점가 포함)되고 있는 양천구 '신영시장'은 지난해 시로부터 고객지원센터 개·보수,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등 예산을 지원받아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 130여 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는 서대문구 '인왕시장'은 고객배송센터를 통해 인근 지역(반경 2km 내) 장바구니 배송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홍제동 중심상권을 지키고 있다.

- 이날 오 시장은 전통시장을 찾아 준 시민에게 감사인사와 새해 덕담을 건네며 “설 대목에 소비가 늘어나는 주요 품목 가격동향 모니터링과 함께 농수축산물 할인 판매도 늘려 명절 가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월)까지 시내 61개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과 농수축산물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는 등 ‘설 명절 특별이벤트’를 진행한다.
- 또 남가좌 파출소(서대문구 남가좌동)를 찾아 연휴 중에도 시민 안전과 치안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 뒤에 홍은119안전센터(서대문구 홍은동)로 이동, 설 명절 화재안전대책 브리핑을 청취하고 휴무 없이 특별 경계근무에 나설 소방대원들을 격려한다.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설 연휴 화재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화재안전 상담 및 점검, 다중이용·화재취약시설 점검, 공동주택 화재안전 홍보 등에 나서는 한편 2.8.(목)~2.13.(화) ‘특별경계근무’에 들어간다.

■ 현장방문 주요 일정

장 소	시 간	주 요 내 용
신영시장	14:20~14:55 35'	○ 점포 방문 및 전통시장 상품권 활용 구매 등
남가좌 파출소	15:30~15:40 10'	○ 근무자 격려 및 연휴기간 시민 안전 당부
인왕시장	16:00~16:35 35'	○ 점포 방문 및 전통시장 상품권 활용 구매 등
홍은119안전센터	16:40~16:55 15'	○ 근무자 격려 및 연휴기간 화재 예방·안전 당부

※ 관련부서 :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이윤창 ☎2133-5802
상권활성화담당관 시장경영지원팀장 이복규 ☎2133-5543